



15일 서귀포시 상호동 돈내코유원지 내 원양폭포. 물흐름이 제법 세차던 예전 폭포의 모습(사진 1)은 온데간데없고 가느다란 물줄기만 떨어져 있다. 이태윤기자

물 마르는 돈내코... “올해 유독 심해”

대표 피서지 ‘돈내코유원지’ 원양폭포 물줄기 약해지고 계곡 수위 낮아져 바닥 노출 주민들 “수십년 봐 왔지만 이렇게 물 마른 건 처음” 지난 겨울 적설량 적은데다 중산간 난개발 등 원인 지목

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가느다란 하나의 물줄기만 바위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돈내코 계곡은 수위가 낮아져 군데군데 자갈 등이 드러나 있었다. 특히 돈내코 계곡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워낙 소량이다 보니 계곡 하류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하류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날 돈내코 방문객 현모(35·부산)씨는 “바위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원양폭포와 예메랄드 빛 계곡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돈내코유원지를 찾았다”면서 “그러나 생각보다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양이 적었고, 계곡 물 또한 별로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돈내코 계곡의 물이 말라가는 현상의 원인으로 올 겨울 산간지역의 적설량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등을 지목하고 있다. 조재범(53) 돈내코마을회장은 “수

십년 동안 돈내코 계곡을 봐 왔지만 요즘처럼 계곡 물이 말라있던 적은 없었다”면서 “올 겨울 산간지역에 눈이 적게 오고 더불어 최근 제주지역에 오랫동안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물이 지속적으로 말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내코뿐만 아니라 최근 제주지역 곳곳에 하천의 물이 말라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강수량 이외에 중산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120일) 서귀포 지역의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은 87일로 기록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동월 기간 대비 역대 무강수 일수에 3위에 해당한다. 1위는 2013년 동월 기간 대비 91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태윤기자

우리 쌀 소비 전문가 양성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영)는 15일부터 우리 쌀 소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 쌀로 만드는 밥과 술 이야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에 따르면 2018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kg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1.79% 감소했으며, 1988년 연간 쌀 소비량 122.2kg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밥을 짓는 쌀의 품종 및 밥맛에 대한 다양성, 쌀을 이용한 각종 활용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의 760-7622. 표성준기자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도내 전통시장 6곳서 공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은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전통시장 6개소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할 계획이다.

대정오일시장은 4월 21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는 지난 12일 공연이 이뤄졌고 세화민속오일시장은 25일 ▷ 동문시장 6월 8일 ▷ 제주시민

속오일시장 9월 7일 ▷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는 10월 12일 공연이 진행된다. 문화공연에서는 길트기, 물허벅춤, 사물놀이, 부채춤, 가야금병창, 지역별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선보인다. 특히 제주아리랑 등 제주 전통민요 공연을 통해 제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대모기자

남원읍 ‘습지도시’ 인증 재도전, 이번엔...

환경부, 내달 후보 선정해 탐사르사무국에 인증 신청 남원읍 2017년 탈락 이후 인증 준비 지속... 결과 관심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물영아리 습지를 보유한 서귀포시 남원읍이 ‘탐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은 환경부 공모로 6월 중 결정될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되면 오는 2021년 열릴 탐사르 협약당사국 총회에서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3월 공모한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신청과 관련한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 외부 평가위원, 컨설팅기관의 남원읍 현장평가와 남원읍지역관리위원회 간담회가 이날 남원읍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탐사르 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탐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도시(마을)로, 3년마다 열리는 탐사르 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인증된다. 제주에서는 동백동산 습지가 위치한 조천읍 지역이 2018년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탐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됐다.

물영아리 습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5번째로 탐사르 습지로 등록되는 등 세계적으로 설빙기관의 남원읍 현장평가와 남원읍지역관리위원회 간담회가 이날 남원읍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2015년

에비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남원읍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남원읍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주도형 습지 관리와 보전전략 구축 등 습지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남원읍이 환경부의 탐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되면 인증기준에 충족하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부에서는 2021년 탐사르총회 개최 전에 탐사르 사무국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탐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친환경 로고를 6년간 부착할 수 있어 지역 브랜드 효과와 함께 생태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국비지원도 이뤄져 생태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문이숙기자

짠! 해녀복의 변신

서귀포시, 폐해녀복 재활용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

서귀포시는 낚아서 버려지는 해녀복을 재활용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녀복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네오프렌 소재는 가볍고 신축성이 뛰어나 보온 보냉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에도 강해 해녀복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재활용이 어려워 낚은 해녀복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폐 해녀복 처리위해 해녀복 업사이클링(Upcycling)을 미래전략팀(액션러닝)과 연계해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폐 해녀복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폐기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낚아서 버려진 해녀복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 등 관광상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물로 처리되던 폐 해녀복을 업사이클링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해녀의 삶이 담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한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해녀복을 현직 해녀에 지원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 공무원 28명 공개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제1회 공무원 공개 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15일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무원 채용 분야는 ▷축산물 검역(6명) ▷과수작물 포장육성(5명) ▷사업소 청사 환경정비(4명) ▷관광지 매표(2명) ▷양식연구 보조

(2명) ▷하수시설관리(2명) ▷수산물 지도보조(1명) ▷수중생태조사(1명) ▷농기계수리(1명) ▷문화재 경비(1명) ▷의료급여관리(1명) ▷도청 의무실 운영(1명) ▷화장장 관리(1명) 등이며 채용 인원은 총 28명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2-24일 3일간이며, 필기시험(6월 8일)과 면접시

험(6월 20일)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공개 채용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표성준기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경제단체 공동성명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공항,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향후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 일정에 차질을 초래시키면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안전상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철회를 요청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관리보전1등급 지역 내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간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가 부단히 요구하여 어렵게 결정된 국책사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복잡한 제주공항의 불편과 도민을 비롯한 제주 방문객들의 안전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서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내외 여건악화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제주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매우 절실하다는 게 우리 경제인들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다시한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저해하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2019. 05.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경영자총협회